



산지 직송 '완도수산물전'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오는 10일까지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완도 산지 직송 수산물을 판매하는 '완도수산물전'을 연다. 백화점을 찾은 남성고객이 완도 특산물인 전복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건강식품보다 아웃도어 의류가 좋아” 어버이날 선물 ‘건강서’ ‘젊음’으로 워킹화 등 스포츠 관련 상품 인기

어버이날 선물의 변함없는 트렌드는 ‘건강’과 ‘젊음’이다. 최근에는 경제력을 갖춘 ‘골든 시니어’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건강관련 효도상품에서 벗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세련된 패션 아이템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골든 시니어’는 1950년대 중반 이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로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갖고 있으며, 인생을 즐기기를 원하는 계층을 말한다.

7일 광주신세계 백화점이 이달 1~7일까지 상품군별로 매출을 살펴본 결과 아웃도어(29%), 스포츠(21%) 부문 매출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아웃도어의 매출 상승세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까지만 해도 어버이날에 특별한 인기를 끌지 못했던 스포츠 관련 상품은 워킹화 돌풍으로 지난해부터 효도선물 인기 상품군으로 자리잡았다. 등산과 걷기가 건강한 삶을 즐기

기 위한 생활 레포츠로 자리 잡으면서 세련된 디자인에 기능성까지 갖춘 아웃도어 의류와 워킹화 등 스포츠 관련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아웃도어와 스포츠 브랜드들이 다양한 기능은 물론 세련된 디자인까지 갖춘 상품들을 선보이면서 젊음과 개성을 추구하는 중·장년층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백화점 측은 분석했다. 효도 선물 스테디셀러인 화장품과 건강식품의 경우 올 매출이 각각

20%, 11% 증가한 데 그쳤지만, 5년 전에는 건강식품이 35%로 가장 높았으며, 화장품(27%), 아웃도어(15%) 순이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지난해 5월 1~8일까지 효도선물로 가장 인기 있었던 품목은 아웃도어와 상품권. 상품권은 같은 기간 매출 증가율이 10년보다 30% 이상 늘었다. 본인이 필요하고 마음에 드는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어 상품권이 실용적인 선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조류에 뒤처지지 않고 젊고 적극적으로 살려는 부모세대의 인식변화가 어버이날 선물 선호도를 바꾸고 있다고 백화점 측은 분석했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아웃도어 등 세련된 패션 아이템, 안티에이징 기능을 강조한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광주시 북구 ‘갯 잡 취업·창업 박람회’ 15개 업체 100여명 현장 채용

광주시 북구가 9일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구인기업과 취업희망 구직자와 현장에서 연결하는 ‘갯 잡(GET JOP) 취업·창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북구지역 15개 우수기업과 취업희망자 1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북구 노사민정협의회와 연계해 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장년층, 여성, 재대군인 등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박람회는 해태제과(주), 일신방직(주), 전방(주), 광주현대병원, 신한생명 등 15개 기업이 개별 면접 부스를 운영하고 각 기업 인사담당 면접관이 100여명을 현장에서 채용할 계획이다.

또 직업심리검사, 직업교육훈련 정보제공, 경력단절여성의 여성 맞춤형 일자리 상담, 재대 군인의 취·창업 상담 등 취업 컨설팅과 건강클리닉, 지문 적성검사 등 각종 이벤트가 펼쳐진다. 채용박람회 참가 희망 구직자는 이날 신분증과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지참해 오전 구인업체 관계자와 현장면접도 할 수 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실직자 취업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이번 행사에서 취업을 원하는 많은 주민들이 안정된 직장을 얻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2-510-1256, 510-141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미국서 가장 다재다능한 차”

기아차 3개차종 최다선정  
광주에서 생산·수출하는 기아차 쏘울이 미국에서 ‘팔방미인’으로 뽑혔다. 기아자동차는 7일 미국 자동차전문 웹사이트 나다가이드닷컴이 발표한 ‘2012 가장 다재다능한 차량’에 쏘울과 포르테, 프라이드 3개 차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미국 자동차 판매업체 중 기아차 차종이 가장 많이 선

정됐다. 나다가이드는 2만달러 이하 2012년형 신차 중 경제성·실내공간·제원·편의사양 등을 평가해 총 10대의 차량을 뽑았다. 쏘울은 독특한 스타일, 버튼시동 스마트키와 유보(UVO) 시스템 등 첨단 편의사양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쏘울은 2009년 3월 북미시장 진출 이후 미국 소형 박스카 시장에서 4년째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프라이드는 사양가치·엔진성능,

포르테는 엔진성능·연비·편의사양 등이 인정받았다. 나다가이드는 기아차 3차종 외에 현대차 i30, 지프 패트리엇, 스바루 임프레자, 포드 피에스타와 포커스, 닛산 베르사, 쉐보레 소닉 등을 뽑았다. 한편, 기아차는 4월까지 미국시장에서 총 18만5610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15만1847대) 대비 22.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LH 부패추방 청렴 결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7일 대강당에서 클린LH 구현을 위한 ‘부패 추방 및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송태도 본부장 등 전체 임직원들은 금품·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LH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기로 결의했다. <LH 광주전남본부 제공>

### 가계대출 연체율 5년만에 최고

0.71%...부동산 경기 침체 주택담보 부실율 급증  
은행의 가계대출 부실채권 비율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부실비율도 5년6개월 만에 가장 높아 주택경기 침체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줬다. 7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3월 말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및 감독방향’을 보면 3월 말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51%로 작년 말(1.36%) 대비 0.15%포인트 상승했다. 부실채권 규모는 20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에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의 가계대출 부실채권 비율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부실비율도 5년6개월 만에 가장 높아 주택경기 침체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줬다. 7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3월 말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및 감독방향’을 보면 3월 말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51%로 작년 말(1.36%) 대비 0.15%포인트 상승했다. 부실채권 규모는 20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에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세를 보이고 가계여신 및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둔화한 점, 작년 4분기 부실채권 정리실적이 감소한 점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1.9%로 작년 말(1.73%)보다 0.17%포인트 상승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부실채권비율은 2.35%로 0.18%포인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비율은 9.09%로 0.95%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실적은 3조 3000억원으로 전분기(10조8000억원)보다 줄었다. /연합뉴스

우리은행 노조 “메가뱅크 합병편 파업”

코스피지수	1,956.44 (-32.71)
코스닥지수	487.01 (-3.52)
금리(국고채 3년)	3.38% (-0.04)
원·달러 환율	1,138.50원 (+7.2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우리은행 노동조합은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방안으로 거론되는 KB금융지주와의 합병이 추진된다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우리금융 노동조합협의회는 7일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영화와 관련한 노조의 견해를 밝혔다. 임혁 우리은행 노조위원장 겸 우리금융 노조협의회장은 “정부 발표대로라면 다른 은행이 우리금융을 합병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에서는 KB금융지주와의 합병설이 돌고 있다”고 운을 폈다. 이

“수차례 실패를 경험한 우리금융 민영화를 정권 말기에 또다시 서둘러 시도하려는 금융당국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메가뱅크 탄생을 위해 우리금융 민영화와 일반통행식으로 이뤄지길 바라며, 대정부 투쟁 등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메가뱅크가 점차 도태되는 상황에서 우리금융과 KB금융을 합병해 대형 은행을 만든다면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

**그린 알로에**  
FOR YOUR HEALTH

## 피부와 장 건강, 면역력 증진을 통한 활기차고 행복한 삶!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출시!

그린알로에 제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합성보존료,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를 첨가하지 않은 3無 제품입니다.

그린알로에는 알로에의 본고장 미국에서 금빛 태양의 기운을 머금은 순수한 자연의 알로에 원료만을 고집합니다.

**섭취대상자**

- 면역력 증진을 원하시는 분
- 활력 있는 생활을 원하시는 분
- 배변 활동이 좋지 않아 장 건강이 걱정 되시는 분
- 피부 건강을 원하시는 분

•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